

「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」 제3차 회의 인사말씀(6.16.)

- 목포상의 회장님, 여수상의 회장님, 전남도 및 기업·대학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
- '5극3특 성장엔진 픽앤백(Pick & Back)' 현장방문 첫 일정을 이곳 해남에서 시작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.
 - 해남을 수도권에서부터 최남단에 위치하여 '땅끝'으로 부르는데, 해양의 시각에서 보면 지역균형발전의 시작점이라고 생각되어 5극3특 중 가장 먼저 방문하게 되었습니다.

[이재명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철학]

- 지금 우리 경제는 **거대한 전환점**에 서 있습니다.
 - 과거 빠른 성장을 가져왔던 수도권 1극체제는 지역소멸과 성장잠재력 저하를 가져오는 한계에 달했습니다.
 - 이제 **지방 분권과 균형발전**은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한 **국가적 생존 전략**입니다.
- 이재명 정부는 지방이 중심이 되어 **전 국토를 넓고 고르게 활용하는 지방균형 국가**를 만들겠습니다.
 - **5극 3특**을 중심으로
각 권역마다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
독자적인 '초격차 성장엔진'을 확실하게 장착하여,
 -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
'**대체불가 대한민국**'으로 도약해야 합니다.

[국토공간 대전환]

- 이를 위해 '국토공간 대전환'을 추진합니다.
 - 지역과 산업을 새롭게 디자인하여, 사람과 기업이 모여드는 초광역 경제·생활권을 구축하겠습니다.
 - 각 지역의 특색을 살려 글로벌 1등으로 도약할 수 있는 맞춤형 성장엔진*을 선정하고,
 - 앵커기업을 유치하여 든든한 미래먹거리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.
- * (예) 탠덤셀, 초전도체, 차세대 태양광·전력망 등
- '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, 과감하게 지원'한다는 원칙 하에 규제완화, 세제, 재정·금융 등 패키지 지원을 전폭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.

[금번 현장방문(PICK&BACK) 의의]

- 오늘부터 5극 3특 전국을 직접 찾아다니며 미래 먹거리를 발굴(PICK) 하겠습니다.
 - * 현장방문 계획(안) : (1회차)서남권·대경권 (2회차)중부권·강원·전북 (3회차)동남권·제주
- 현장의 건의 내용은 정부, 기업, 경제단체가 함께하는 「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*」를 통해 체계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지원(BACK)하겠습니다.
 - * 정부, 기업, 경제6단체(간사: 대한상의)가 상시 소통하는 플랫폼으로,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가로막는 애로사항 청취 및 정책에 반영(3.12 발족)

[금일 회의 주제: GX 등]

- 오늘 방문한 해남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'GX(녹색 전환) 첨단 기술'의 전초기지이자 최전선입니다.
 - 특히 이곳 솔라시도가 첨단산업·재생에너지·관광 등 미래산업과 친환경성장을 선도할 대한민국의 대표 신성장 거점입니다.
 - 이 지역에 산업이 와서 에너지를 지산 소비하는 형태가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핵심 키라고 생각합니다.
- 해남의 미래 먹거리는 '차세대 태양광'과 같이 세계 시장을 선도할 1등 첨단기술과 제품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.
 - 솔라시도 인근에 조성될 재생에너지 기반 데이터센터와 신산업 단지를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녹색 기술 융합기지로 키워내야 합니다.
- 정부는 「한국형 녹색대전환(K-GX) 전략」을 통해 뒷받침하겠습니다.
 - 녹색전환이 부담이 아닌 산업경쟁력의 기회가 되도록 “신성장동력이 되는 녹색전환”, 개인·기업·지역·사회 모두가 참여하는 “모두의 녹색전환”을 추진하겠습니다.
 - 아울러, 향후 10년간 재정투자를 대폭 확대하고, 혁신적 세제 인센티브, 녹색·전환금융과 더불어 과감한 규제 혁신을 통해 “지속가능한 녹색전환”을 추진하겠습니다.
- 오늘 회의에서 현장에서 체감하고 계신 부분들을 허심탄회하게 말씀주시면,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.